

# FILMS FROM THE 1950s 5개국영화제 - 1950년대영화



문의 / INQUIRY

[www.koreafilm.or.kr](http://www.koreafilm.or.kr)

02-3153-2075~7

입장료 무료 / Free entrance

6.24  
TO 7.03  
2014

장소 / VENUE

한국영상자료원  
Korean Film Archiv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00 Worldcupbuk-ro, Mapo-gu, Seoul

공동주최 / CO-ORGANIZER

협찬 / SPONSOR

INSTITUT  
FRANÇAIS  
RÉPUBLIQUE DE CORÉE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 Seoul  
주한이탈리아문화원  
Italian Cultural Institute - Seoul



The Japan Foundation, Seoul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Mitsubishi Corporation  
(Korea) Ltd.



## 다양한 영화보기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창립 40주년을 맞는 올해 뜻 깊은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해외 문화원들과 함께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외 예술영화를 관람하기 힘든 시절 한국의 시네필들은 문화원의 16밀리 프린트 상영으로 예술영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고 이러한 상영을 통해 저명한 영화평론가와 영화감독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이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위치하였던 1990년대 주한 프랑스 문화원을 비롯하여,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등 각국의 대사관과 문화원과 함께 예술영화를 상영하였으며 현재에도 매년 1~2회 영화 상영회 및 영화박물관 전시를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네필들과 일반 관객들이 이번 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영화보기의 즐거움을 한껏 누렸으면 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프랑스 문화원, 주한 미국대사관 아메리칸 센터,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훈 /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 ENJOY OUR DIVERSE RANGE OF FILMS

KOFA has held many significant events this year, the 40th since its foundation. And it is my great pleasure to hold 'Films from the 1950s Festival' together with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s in Korea.

In the past, when opportunities to catch foreign films were rare, cinephiles in Korea would satisfy their thirst by watching films on 16 mm prints at cultural centers. And those experiences produced some of Korea's most celebrated film critics and directors.

And since 1990, we have shown art films with embassies and cultural centers including the Institut Française Seoul and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and we continue to do so. I hope both cinephiles and the general public will enjoy the diverse array of films being shown at this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thank the Japan Foundation, Institut Française Seoul, American Center Korea, and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Byung-Hoon Lee / Director, Korean Film Archive

## 50년대 영화들: 특별한 회고전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주한 미국 대사관 아메리칸센터, 주한 프랑스 문화원은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전후(戰後) 5개국 명작(名作)들의 상영을 통해 1950년대를 교차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이 프로젝트는 유럽, 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사회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관객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테마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1950년대 각 나라의 중요하고 상징적인 작품들을 엄선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 프로젝트의 공동주최를 통해 우리는 1950년대의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적인 고난을 겪은 후 사람들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싶었을까요.

도움을 아끼지 않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우정이 평화와 상호이해라는 이름 아래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안젤로 조에 /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고지마 히로유키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김수남 / 주한 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 관장  
다니엘 올리비에 /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 FILMS FROM THE 50s: A UNIQUE RETROSPECTIVE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The Japan Foundation, The American Center and the French Institute are proud to co-present a cross-cultural perspective on postwar world films from the 1950s through masterpieces,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Film Archive.

It is a theme that has yet to be addressed in Korea, and will intrigue, engage and inform the public through exploring culture and society in Europe, Asi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a diverse range of feature films. To this end, we have gathered significant pieces from the 1950s from around the globe. By co-organizing this project in Korea for the first time,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he audience, to share and experience this unique period in history – in a way to grasp what people had looked for through the medium of film, after the universal hardships of World War II.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Korean Film Archive for their cooperation. We truly hope this precious friendship will lead to further multinational projects in the future in the name of peace and understanding.

Italy / Angelo Gioè / Director  
Italian Cultural Institute, Seoul

Japan / Hiroyuki Kojima / Director  
The Japan Foundation, Seoul

USA / Su-Nam Kim / Director  
The American Center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Seoul

France / Daniel Ollivier / Director  
French Institute of the French Embassy, Seoul

## 1950년대 -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왜 유독 1950년대 영화일까요. 5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을 털고 전 세계가 가치관의 극적인 변화를 요구받던 시기입니다. 영화는 그런 시대적 요청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튀어 오르듯 세계 각국에서 훌륭한 영화들이 태어났습니다.

50년대 영화는 밝음을 지향했는지 우리 옆의 상흔도 지우려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 불안과 희망,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서성이는 인간의 모습과 새로운 세계관을 투영하려 애썼습니다. 이번 기획은 과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이 한때 공감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공유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초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한 프랑스 문화원, 이탈리아 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아메리칸센터,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의 이해와 열정이 없었다면 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또 다른 꿈을 꾸입니다. 더 많은 나라를 참여시켜 내년엔 60년대 영화, 그 다음엔 70년대 영화를 차례차례 선보이고 싶다는...

신이화(辛理華) / 프로젝트 기획



## 1950s - ON THE EDGE OF DARKNESS AND LIGHT

Why choose films from the 1950s in particular? The 50s was a period in which the entire world was thrown into dramatic changes in its attitudes, values and beliefs, after emerging from the darkness of World War II. However, film making once again became a tool for free expression. And as if the floodgates had suddenly opened, exquisite films began to be produced all across the globe.

Films from the 50s craved for brightness, yet they also embraced the scars from the wartime period. Films strived to portray the human condition,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and future, anxiety and hope, war and peace, and struggling to make sense of a new view of the world.

This project is not about addressing the past. I wanted to create an opportunity to share these experiences and values that were once shared by Asi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is unique period in history.

Without the cooperation and enthusiasm from the French Institute, the Italian Cultural Institute, The Japan Foundation, The American Center and the Korean Film Archive, the project could have ended just as a pipe dream. I wish to express my most sincere thanks to them all. It is also my wish to continue this project by covering films from the 60s and onwards into future decades.

Rika Shin / Project Planner





INSTITUT  
FRANÇAIS  
REPUBLIQUE DE CORÉE

FRANCE

## 전쟁의 폐허 위에 미래를 그리다

프랑스대사관과 문화원은 프랑스영화 사상 중요한 세 영화, 특히 새로운 세대가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서 미래를 그려야 했던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상영하게 돼 기쁩니다.

유작 <사랑은 마시고 노래하며>를 남기고 3월에 우리 곁을 떠난 알랭 레네의 <히로시마, 내 사랑>은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그의 첫 장편이자 걸작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화해를 다뤘으며 '사랑과 죽음의 시'라고도 불립니다.

자크 타티의 <나의 아저씨>는 과장되고 오류투성이인 현대사회의 모습을 예견한 영화로 사라져가는 과거와 다가오는 미래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줌으로써 두 세계의 접점 역할을 했습니다.

로저 바딤의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를 통해 브리짓 바르도는 대단히 보수적인 시대의 보수적인 나라에서 여성 해방과 성적 자유의 상징이자 관습에 대한 잠재적인 혁명을 꿈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까펠리앙 / 영상 교류 담당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

## BUILDING A FUTURE ON THE RUINS OF WORLD WAR II

The French Institute and the French Embassy are pleased to screen three important films of French Cinema History and specifically of this key time period of the 50s when a new generation had to build a future on the ruins of World War II.

On March 1st this year, Alain Resnais passed away leaving us with a beautiful last film as a last will : « Aimer, Boire et Chanter » (To Love, To Drink and To Sing). « Hiroshima mon Amour », adapted from Marguerite Duras' novel, was his first long feature film and it is now considered as one of his masterpieces. At the same time a poem of love and death, this film is a call to the reconciliation between peoples.

Jacques Tati's « Mon Oncle » (My Uncle) is a visionary work which anticipates all the exaggerations and the faults of modernity. In France, in this time of reconstruction, this movie is the hinge between a traditional world which is dying and a rising New World which announces with humor what our lives would become.

In Roger Vadim's « Et Dieu créa... la Femme » (And God created... the Woman), Brigitte Bardot becomes a legend: the emblem of the emancipation of women, the symbol of sexual freedom and existentialism and the latent revolution of the customs, in a very conservative country and time period.

Daniel Kapelian / Audiovisual attaché  
French Institute of the French Embassy, Seoul

## FILMS



### HIROSHIMA MON AMOUR / HIROSHIMA, MY LOVE / 히로시마, 내사랑

1959 / 92분 / DVD / 드라마 / 흑백 /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알랭 레네 주연: 에마누엘 리바, 에이지 오카다

Directed by Alain Resnais Starring Emmanuelle Riva, Eiji Okada

영화 '평화'를 촬영하기 위해 히로시마에 온 프랑스 여배우 '그녀'는 일본인 건축가 '그'와 우연히 만나 이 둘간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녀는 히로시마에 머물러 달라는 남자의 요청을 거절한다. 그녀에게는 고향에서 자신의 첫사랑인 독일군 병사를 사랑한 대가로 죽음을 목격하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지하실에 감금돼 겪은 끔찍한 고통의 상처가 존재한다. 사랑으로 인한 좌절과 고통, 그리고 절망이라는 이름의 과거가 떠나질 않는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 히로시마에서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현실과 중첩되면서 그와 그녀의 침묵의 대화는 이어진다.

An involving meditation on the potentials and limits of passion and pacifism featuring two « impossible » love affairs, one overshadowed by the bomb, one undercut by World War II exigencies.



### MON ONCLE / MY UNCLE / 나의 아저씨

1958 / 116분 / Blue-ray / 코미디 / 컬러

감독: 자크 타티 주연: 자크 타티, 장 피에르 졸라

Directed by Jacques Tati Starring Jacques Tati, Jean-Pierre Zola

전자동 시스템의 만능 주택에 사는 윌로씨의 누이 부부는 그 만족감으로 행복하다고 여기며 산다. 완벽한 공간에 살지만 지루해하는 윌로씨의 어린 조카에게 그나마 위안이 돼주는 건 무일푼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미로 같은 집에 살지만 적어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 윌로 삼촌이다. 윌로씨도 매형인 사장의 공장에서 일해보지만 그는 자동차와 기계와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사고를 친다.

Hulot lives in a picturesque house in a working class area. From time to time he goes to entertain his bored nephew who lives with his parents in an ultra-modern villa.



### ET DIEU... CRÉA LA FEMME / AND GOD CREATED WOMAN /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1956 / 95분 / DVD / 드라마 / 컬러 /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로저 바딤 주연: 브리짓 바르도, 장-루이 트리티냥

Directed by Roger Vadim Starring Brigitte Bardot, Jean-Louis Trintignant

생 트로페의 작은 마을에서 양부모와 함께 사는 줄리엣은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18세의 소녀로 마을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줄리엣은 자극적인 옷차림과 행동으로 남자들을 애태우면서 이를 즐긴다. 줄리엣은 결혼한 후에도 예전 남자와 다시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의 남편 미셸은 줄리엣을 용서하고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The astounding success of Roger Vadim's And God Created Woman revolutionized the foreign film market and turned Brigitte Bardot into an international star. Bardot stars as Juliette, an 18-year-old orphan whose unbridled appetite for pleasure shakes up all of St. Tropez; her sweet but naive husband Michel endures beatings and insults in his attempts to tame her wild ways.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 Seoul  
주한이탈리아문화원  
Italian Cultural Institute - Seoul

ITALY

## 1950년대 이탈리아로의 여행

1945년 3월, 알베르토 라투아다는 "오직 영화만이 한 나라의 뿌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0년 뒤 잔 피에로 브루네타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탈리아 영화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교육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썼습니다.

네오리얼리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50년대의 이탈리아 영화는 자아성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실존적인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고 힘차게, 그리고 우아하게 묘사했습니다. 바로 '돌체비타(달콤한 인생)'의 부활입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 걸작은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1955년 자크 리베트는 <이탈리아 여행>이 제작된 이후 "모든 영화는 십년이나 시대에 뒤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로셀리니는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극적인 내용을 단순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그의 깔끔한 스타일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펠리니는 <길>로 그의 첫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찬사를 얻었습니다. 이 영화는 죄에 대한 기독교적 성격의 교훈적 이야기로, 특히 여성의 존재에 대한 우화입니다. <카비리아의 밤>은 펠리니 영화의 전환기를 잘 보여 줍니다. 공터 중간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들이 있는 로마가 이 영화의 배경인데 이는 삶의 상처에 저항할 줄 아는 카비리아와 같은 사람만이 걸로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맑은 영혼을 지키며, 극복해 나간다는 은유입니다.

안젤로 조에 /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 A LITTLE JOURNEY THROUGH ITALY OF THE 1950s

In March 1945, Alberto Lattuada stated, "Only cinema is able to reveal the grounds of a nation." Fifty years after, the historian and film critic Gian Piero Brunetta wrote, "Even if only for a few seasons, the Italian film contributed decisively to direct masses of Italians to the education of a new national identity."

Emancipating itself from neo-realism, the Italian cinema of the 50s faced the existential themes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more introspective than descriptive, and depicted the reality with depth, power, and grace that became a model all over the world. For Italy, this was a revival in the form of a newfound "Dolce Vita." Most of the great masterpieces produced by Italian cinema and the expansion of the film industry, which attracted producers, directors, and international stars, date from this particular period. With the appearance of *Journey to Italy*, "all the films have aged ten years (J. Rivette, 1955). Rossellini brought his limpid style to the highest level, consistent with the reality while simplifying and eliminating the dramatic content.

*The Road* by Fellini gave him international acclaim as he won the first Academy Award for the Best Foreign Language Film. The film is a Christian parable about sin, an allegory of the human condition particularly of women, and a picaresque tour through the landscapes of the central Apennines.

*Nights of Cabiria* is a turning point in Fellini's filmography; he is excellent in showing what is in the background, that is, the city of Rome. The large popular buildings standing in the middle of nowhere become a metaphor for an existential emptiness, which only those who can withstand the insults of life – just like Cabiria – are able to overcome while retaining a pure soul beyond appearances.

Angelo Gioè / Director  
Italian Cultural Institute, Seoul

## FILMS



### VIAGGIO IN ITALIA / JOURNEY TO ITALY / 이탈리아 여행

1954 / 87분 / DVD / 드라마 / 흑백 /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로베르토 로셀리니 주연: 잉그리드 버그만, 조지 샌더스

Directed by Roberto Rossellini Starring Ingrid Bergman, George Sanders

전후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중 하나로서,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여행>은 영국에서 나폴리로 여행을 온 위기에 놓인 한 부부를 그린다. 부부의 정신적 위기, 그리고 화해 및 재결합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기술을 상실한 현대인의 비극을 빼어나게 보여준다.

Among the most influential films of the postwar era, Roberto Rossellini's *Journey to Italy* illustrates the declining marriage of a couple from England on a trip in the countryside near Naples. Through the process from the spiritual crisis to reconciliation of the couple, the film clearly shows the tragedy of modern men, who have lost the capacity of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 LE NOTTE DI CABIRIA / NIGHTS OF CABIRIA / 카비리아의 밤

1957 / 110분 / DVD / 드라마 / 흑백 /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주연: 줄리에타 마시나, 프랑수아 페리외

Directed by Federico Fellini Starring Giulietta Masina, François Périer

1957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페데리코 펠리니의 <카비리아의 밤>은 로마의 거리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순진한 매춘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Academy Award winner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in 1957, *Nights of Cabiria* is the tragic story of a naïve prostitute searching for true love in the streets of Rome.



### LA STRADA / THE ROAD / 길

1954 / 108분 / DVD / 드라마 / 흑백 / 12세이상 관람가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주연: 안소니 퀸, 줄리에타 마시나

Directed by Federico Fellini Starring Anthony Quinn, Giulietta Masina

1956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페데리코 펠리니의 <길>은 어리고 순박한 소녀 젤소미나와 짐승 같은 곡예사 잠파노의 극적인 삶을 그린 영화이다. 젤소미나는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순회서커스 곡예사 잠파노에게 팔려가 그의 조수가 된다. 그러던 어느날 잠파노는 옛 라이벌 풀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분노가 폭발하여 결국에는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Academy Award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in 1956, *La Strada* illustrates the dramatic lives of a young woman, Gelsomina, and a brutish strongman, Zampanò. Gelsomina is sold by her mother into the employ of Zampanò, in a traveling circus. When Zampanò encounters an old rival in highwire artist the Fool, his fury is provoked to its breaking point causing their destruction.





The Japan Foundation, Seoul

JAPAN

## 50년대 꼭 봐야할 일본영화

1950년대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오락과 치유의 대상으로 영화에 의존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많은 영화인들이 양질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덕분에 이 시기는 '일본영화의 황금시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황금시대 10여 년 동안 만들어진 작품 수는 약 5,000편에 달한다. 이 기간은 훗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많은 감독들이 정력적으로 활동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번에 상영하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 (베네치아국제영화제황금사자상, 1950),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대표작 <동경 이야기> (1953), 미조구치 겐지 감독의 <치카마츠 이야기> (1954), 이 세 작품은 그야말로 '황금시대'의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올해는 <라쇼몽>과 <치카마츠 이야기>의 음악을 맡았던 하야사카 후미오(1914~55)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그의 영화음악도 함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고지마 히로유키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 THE THREE MUST-WATCH JAPANESE FILMS IN 1950s

The ten years of the 1950s are regarded as the "Golden Age" of Japanese cinema. The Japanese public, which had been placed in a predicament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irsted to watch films for both entertainment and consolation of their everyday life. Filmmakers such as the now worldwide-renowned Akira Kurosawa and Kenji Mizoguchi created a number of film works of good quality in response to their strong desires.

The three films that the Japan Foundation present at this festival – "Rashomon" by Kurosawa Akira (1950, won the Golden Lion at the Venice Film Festival), "Tokyo Story" by Ozu Yasujiro (1953) and "A Story from Chikamatsu" by Mizoguchi Kenji (1954) – can all be described as masterpieces of the first half of the "Golden Age".

The contribution of Hayasaka Fumio (1914-55), who directed music in "Rashomon" and "A Story from Chikamatsu", is also worth noting as his works during this period lifted Japanese film music to another dimension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of image and sound.

Hiroiyuki Kojima / Director  
The Japan Foundation, Seoul

## FILMS



### 羅生門 / RASHOMON / 라쇼몽

1950 / 88분 / 35mm / 시대극 / 흑백 /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주연: 미후네 도시로, 교 마치코

Directed by Kurosawa Akira Starring Mifune Toshiro, Kyo Machiko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 소설 '덤불 속'을 원작으로 인간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 '라쇼몽' 아래서 만난 세 사람은 나무꾼과 여인, 그리고 사무라이가 얽힌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화자에 따라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1951년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Rashomon is based on the novel "Inside of a Grove" by Akutagawa Ryunosuke. Three men, sheltering from the rain, start to talk about the story on a woodcutter, a woman, and a samurai. But the story shows differences and variations, depending on who's talking. Winner of the Golden Lion at Venice Film Festival in 1951. TEXT: THE KOREAN ASSOCIATION OF CINEMATHEQUES



### 東京物語 / TOKYO STORY / 동경 이야기

1953 / 136분 / 35mm / 드라마 / 흑백

감독: 오즈 야스지로 주연: 류 치슈, 하라 세쓰코

Directed by Ozu Yasujiro Starring Ryu Chishu, Hara Setsuko

남부 일본의 항구도시에 사는 한 노부부는 동경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노부부를 반기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자식들과 떨어져 쓸쓸한 여행길이 되어버린 노부부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식 복이 많다며 서로 위로하는데...

An elderly couple journey to Tokyo to visit their children and are confronted by indifference, ingratitude and selfishness. When the parents are packed off to a resort by their impatient children, the film deepens into an unbearably moving meditation on mortality.



### 近松物語 / A STORY FROM CHIKAMATSU / 치카마츠 이야기

1954 / 102분 / 35mm / 시대극 / 흑백 / 15세이상 관람가

감독: 미조구치 겐지 주연: 가가와 교코, 하세가와 카즈오

Directed by Mizoguchi Kenji Starring Kagawa Kyoko, Hasegawa Kazuo

모헤는 표구상에서 달력 제작을 한다. 주인 마님인 오상이 돈 문제로 곤란해 하자 돈을 마련해주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면서 불륜의 관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 두 사람은 주인의 분노를 피해 자살하려고 호수로 도주한다. 그러한 도중에 애정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In 17th century Kyoto, Osan is married to Ishun, a wealthy miserly scroll-maker. When Osan is falsely accused of having an affair with the best worker, Mohei, the pair flee the city and declare their love for each other. Ishun orders his men to find them and separate them to avoid public humiliation.





USA

## 할리우드를 빛낸 소시민의 영웅담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가 미국의 많은 영화 가운데 대표적인 두 작품 <사랑은 비를 타고>와 <로마의 휴일>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영화 모두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인공 돈(진 켈리)은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스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시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그의 애인 캐시(데비 레이놀즈)는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극배우 지망생입니다. 둘은 할리우드가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뀌는 혼돈의 시기에 만나 함께 일하며 사랑을 확인 하게 됩니다. 2006년에 미국영화협회는 이 영화를 할리우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진 켈리가 역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보여준 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름 소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 또한 느낄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월-E-2008>와 <상하이 나이트-2003> 등 최근의 영화들도 이 춤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걸 그룹 '소녀시대'도 2009-2010 월드 투어에서 이 영화의 주제곡 '싱잉 인 더 레인(Singin' in the Rain)'을 불렀습니다.

한편,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 조(그레고리 펙)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덕적인 딜레마로 갈등하는 불안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자로서 그는 특종과 그의 애인 앤 공주(오드리 헵번)와의 신뢰를 지키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영화는 헵번의 매력적인 연기를 통해 왕실 밖 평범한 삶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로마의 휴일>은 헵번이 미국에서 찍은 첫 번째 대작이자 그녀에게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상을 안겨준 영화입니다. 두 주인공 모두 영화 이외의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인 훈장'을 받았습니다. 헵번은 유네스코 친선대사로도 활약했습니다.

아메리칸센터가 소장한 영화작품들과 매달 진행되는 영화상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http://facebook.com/usembassyseoul>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볼첸 라이 /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 스페이스 디렉터

## HEROES WHO ILLUMINATED HOLLYWOOD

The American Center Korea (ACK)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in Seoul is delighted to introduce two iconic American films from its extensive selection: Singin' in the Rain and Roman Holiday. Both of these film feature heroes that are emblematic of the everyday person.

Singin' in the Rain's Don (Gene Kelly) is a star who never forgot his humble beginnings; he remains unimpressed with the trappings of success. Don's love interest, Kathy (Debbie Reynolds), struggles to make i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ogether, they try to transition from silent films to "talkies." Singin' in the Rain is one of Hollywood's most influential films. In 2006, the American Film Institute named it the greatest movie musical of all time. Gene Kelly's legendary dance scene will have viewers begging for a summer shower so they can skip through the streets and appreciate the beautiful things in life. Dozens of films, from Wall-E to Shanghai Knights pay homage to that dance. Korean pop group Girls' Generation also sang Singin' in the Rain during their 2009-2010 Into the World tour.

Meanwhile, Roman Holiday features Joe (Gregory Peck), an imperfect hero who struggles with a moral dilemma when he is presented with the opportunity of a lifetime. His professional success could mean betraying the trust of the unforgettable Ann (Audrey Hepburn). The film underscores the simple charms of life outside of royalty through Hepburn's enchanting performance. Roman Holiday was Hepburn's first major American film and catapulted her to stardom as she won an Academy Award, Golden Globe, and BAFTA for her performance. Both stars were awarded Presidential Medals of Freedom for their humanitarian work; Hepburn was also a UNICEF Goodwill Ambassador.

Visit us at <http://facebook.com/usembassyseoul> to learn more about the ACK's movie collection and monthly movie screenings.

Borchien Lai / American Spaces Director  
The American Center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Seoul

## FILMS



### SINGIN' IN THE RAIN / 사랑은 비를 타고

1952 / 103분 / DVD / 뮤지컬코미디 / 컬러

감독: 진 켈리, 스탠리 도넨 주연: 진 켈리, 도날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 진 헤이건, 밀러드 미첼  
Directed by Gene Kelly, Stanley Donen Starring Gene Kelly, Donald O'Conner, Debbie Reynolds, Jean Hagen, Millard Mitchell

진 켈리는 목소리 연기가 형편없는 여배우와 함께 유성영화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잃게 된 할리우드의 무성영화 스타로 출연한다.

Gene Kelly stars as a Hollywood star of the silent era who finds his career jeopardized when he and his shrill-voiced leading lady must appear in a talkie together.



### ROMAN HOLIDAY / 로마의 휴일

1953 / 118분 / DVD / 로맨틱 코미디 / 흑백

감독: 윌리엄 와일러 주연: 그레고리 펙, 오드리 헵번  
Directed by William Wyler Starring Gregory Peck, Audrey Hepburn

왕족으로서 지켜야 할 룰과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피곤하고 싫증난 공주가 거리로 뛰쳐나간다. 그녀는 그녀와 친구가 된 남자가 특종을 찾고있는 기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A young princess, tired of the constraints her position brings, runs away. She does not know the man who befriends her is a reporter out for a story.





## 바람난 '자유부인'과 팜프 파탈 '소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공간에 이데올로기 싸움이 여전했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 사람들을 헐벗게 했다. 동시에 새로운 외국 풍조와 근대적 개념들이 들어와 사회는 더할 수 없이 혼란스러워져 갔다.

<자유부인>은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러한 시대 풍토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교수 장태윤과 미스 박과의 데이트는 순수하게 그려지는 반면 양품점에서 일하다 춤바람 난 오선영은 흐느끼며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것이다. 근대화로 인해 여성에게 일터를 허용하면서도 봉건적인 사회의식은 어떠한 일탈도 용납하지 않은 채 여전히 여성을 가정의 귀속물로 바라보고 있다.

기형적으로 굴절된 사회는 <지옥화>에서 '소녀'라는 인물에도 투영된다.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훔쳐 파는 영식의 애인 소녀는 양공주이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영식의 동생을 유혹하고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애인의 범행을 고발한다. '팜프 파탈' 소녀는 기존의 질서와 윤리가 파괴된 전후의 혼란 속에 태어난 새로운 인간형이라 할 수 있겠다.

오성지 / 프로그래머, 한국영상자료원

## TURMOIL IN THE POSTWAR 1950s – UNFAITHFUL “MADAME FREEDOM” AND FEMME FATALE ‘SONYA’

Korean society underwent tremendous changes after the Korean War. The fight over ideology continued, and people were left in abject poverty. Meanwhile, trends from overseas and modernity threw Korean society into confusion. The film *Madame Freedom* aptly shows the climate of the times and society's perception of women.

A date between the college professor Jang Tae-yun and Ms. Park is innocently portrayed, while the professor's wife, Oh Seon-yeong, who works at a boutique and enjoys dancing, weeps and begs her husband for forgiveness for her indiscretions. While modernization allowed women to work, deviation from the norm was unacceptable, and the idea that women belonged to the family was reinforced. In *The Flower in Hell*, a distorted society is depicted through the character Sonya.

Sonya is a “Western princess,” a prostitute serving US military men, and the girlfriend of Yeong-shik, who sells goods he steals from the US military base. Sonya seduces Yeong-shik's younger brother and reports Yeong-shik to the police. It could be said that Sonya is a character born out of post-war chaos, when the existing order and morality had been destroyed.

Sung-Ji Oh / Curator  
Korean Film Archive

## FILMS



### 자유부인 / MADAME FREEDOM

1956 / 124분 / 35mm / 드라마 / 흑백

감독: 한형모 출연: 박암, 김정림, 노경희, 주선태

Directed by Han Hyung-mo Starring Park Am, Kim Jeong-rim, No Kyeong-hie, Ju Sun-tae

대학교수 부인 오선영(김정림)은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 뒤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댄스파티에 가게 된다. 그리고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운다. 한편 장교수(박암)는 제자인 타이피스트(양미희)에게 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 오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 정비석의 문제작 <자유부인>을 한형모 감독이 영화화 했다. 수도권장 개봉 당시 10만 8천명을 동원, 1956년 흥행 1위를 차지했다. 1950년대 보수적인 한국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례적이고 적극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표현한 작품으로 2007년 9월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재됐다.

A professor's wife, Seon-yeong (Kim Jeong-rim), starts working at a boutique shop. She meets Yun-ju (No Gyeong-hui) and goes to a dance party. She learns how to dance from the next-door neighbor. Meanwhile, her husband Jang (Park Am) is attracted to his student (Yang Mi-hui), who works as a typist. But he does not want to ruin his family while waiting for his wife to return home. In the end, Seon-yeong realizes her mistake and comes back home with regret. Based on the controversial novel written by Jeon Bi-seok, the film was a hit at the box-office. This film follows an exceptional trend in dating that existed as part of the custom at the time; and, by doing so, it illustrates free love, women's extramarital affairs, and Korea's landscape where America's modern lifestyle is blindly pursued. The film was registered as cultural asset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2007.



### 지옥화 / THE FLOWER IN HELL

1958 / 86분 / 35mm / 드라마 / 흑백

감독: 신상옥 출연: 최은희, 김hak, 조해원, 강선희

Directed by Shin Sang-ok Starring Choi Eun-hee, Kim Hak, Cho Hae-won

영식(김hak) 일당은 양공주촌에 살면서 미군부대의 창고를 털어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한다. 영식의 동생 동식(조해원)은 형을 찾아 상경한다. 영식의 애인인 소녀(최은희)는 동식을 마음에 두게 되고 영식 일당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그를 유혹한다. 소녀는 동식과 달아나기 위해 헌병대에 영식의 범행을 알린다. 데뷔작인 <악야> 이후 신상옥 감독이 6년 만에 양공주라는 소재를 갖고 만든 영화로 당대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50년대 한국영화 대표작의 반열에 올랐다. 형제를 모두 유혹해 파멸에 빠뜨리는 소녀를 연기한 최은희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팜프 파탈의 존재감을 과감하게 보여줬다.

Yeong-sik's (Kim Hak) gang operates in a village of yanggongju (prostitutes for foreign soldiers); he steals from US Army storage to sell in the market. His younger brother Dong-sik (Cho Hae-won) comes to visit the town, which is located just outside a military camp. Dong-sik asks his brother to go back to their hometown but he Yeong-sik doesn't listen to Dong-sik. Then Dong-sik is seduced by Sonya, a prostitute and his brother's lover. The film didn't draw attention at the time, but it was rediscovered as one of great films directed by Shin Sang-ok in the 1990s. Shin's muse and his wife, Cho Eun-hee, played a femme fatale, a prostitute who seduces brothers and ruins their future.



# 상영시간표 / SCREENING SCHEDULE / 2014.6.24 (화) ~ 7.3 (목)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 Free entrance

6.30 (월)휴관 / CLOSED

(K) 한국어자막 / (E) English Subtitle

<b>TUESDAY</b> <b>6.24</b>	<b>14:00 / 2관</b> (E)  <b>자유부인</b> MADAME FREEDOM 1956 / 124min	<b>16:30 / 2관</b> (K)  <b>MON ONCLE</b> MY UNCLE 나의 아저씨 1958 / 116min	<b>19:00 / 2관</b> (K) (E)  <b>羅生門</b> RASHOMON 라쇼몽 1950 / 88min
<b>WEDNESDAY</b> <b>6.25</b>	<b>14:00 / 2관</b> (K)  <b>SINGIN' IN THE RAIN</b> 사랑은 비를 타고 1952 / 103min	<b>16:30 / 2관</b> (K)  <b>HIROSHIMA MON AMOUR</b> HIROSHIMA, MY LOVE 히로시마, 내사랑 1959 / 92 min	<b>19:00 / 2관</b> (K)  <b>VIAGGIO IN ITALIA</b> JOURNEY TO ITALY 이탈리아 여행 1954 / 87min
<b>THURSDAY</b> <b>6.26</b>	<b>14:00 / 2관</b> (K)  <b>ET DIEU... CRÉA LA FEMME</b> AND GOD CREATED WOMAN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1956 / 95min	<b>16:30 / 2관</b> (K)  <b>LE NOTTI DI CABIRIA</b> NIGHTS OF CABIRIA 카비리아의 밤 1957 / 110min	<b>19:00 / 1관</b> (K) (E)  <b>東京物語</b> TOKYO STORY 동경 이야기 1953 / 136min
<b>FRIDAY</b> <b>6.27</b>	<b>14:00 / 1관</b> (E)  <b>지옥화</b> THE FLOWER IN HELL 1958 / 86min	<b>16:30 / 1관</b> (K) (E)  <b>近松物語</b> A STORY FROM CHIKAMATSU 치카마츠 이야기 1954 / 102min	<b>19:00 / 1관</b> (K)  <b>ROMAN HOLIDAY</b> 로마의 휴일 1953 / 118min
<b>SATURDAY</b> <b>6.28</b>		<b>16:30 / 1관</b> (K)  <b>LA STRADA</b> THE ROAD 길 1954 / 108min	<b>19:00 / 1관</b> (K)  <b>SINGIN' IN THE RAIN</b> 사랑은 비를 타고 1952 / 103min
<b>SUNDAY</b> <b>6.29</b>		<b>16:00 / 1관</b> (K)  <b>MON ONCLE</b> MY UNCLE 나의 아저씨 1958 / 116min	<b>18:30 / 1관</b> (K) (E)  <b>羅生門</b> RASHOMON 라쇼몽 1950 / 88min
<b>TUESDAY</b> <b>7.01</b>	<b>14:00 / 1관</b> (K) (E)  <b>東京物語</b> TOKYO STORY 동경 이야기 1953 / 136min	<b>16:30 / 2관</b> (K)  <b>LE NOTTI DI CABIRIA</b> NIGHTS OF CABIRIA 카비리아의 밤 1957 / 110min	<b>19:00 / 2관</b> (K)  <b>ET DIEU... CRÉA LA FEMME</b> AND GOD CREATED WOMAN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1956 / 95min
<b>WEDNESDAY</b> <b>7.02</b>	<b>14:00 / 2관</b> (K)  <b>ROMAN HOLIDAY</b> 로마의 휴일 1953 / 118min	<b>16:30 / 1관</b> (K) (E)  <b>近松物語</b> A STORY FROM CHIKAMATSU 치카마츠 이야기 1954 / 102min	<b>19:00 / 2관</b> (K)  <b>LA STRADA</b> THE ROAD 길 1954 / 108min
<b>THURSDAY</b> <b>7.03</b>		<b>16:30 / 2관</b> (K)  <b>HIROSHIMA MON AMOUR</b> HIROSHIMA, MY LOVE 히로시마, 내사랑 1959 / 92 min	<b>19:00 / 2관</b> (K)  <b>VIAGGIO IN ITALIA</b> JOURNEY TO ITALY 이탈리아 여행 1954 / 87min

## 공동주최 / CO-ORGANIZER

주한 프랑스 문화원 / French Institute of the French Embassy, Seoul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 Italian Cultural Institute, Seoul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 The Japan Foundation, Seoul  
 미국대사관 야메리칸센터 / The American Center of the United States Embassy, Seoul  
 한국영상자료원 / Korean Film Archive

## 협찬 / SPONSOR

韓國三菱商事 / Mitsubishi Corporation (Korea) Ltd.

## 문의 / INQUIRY

www.koreafilms.or.kr / 02-3153-2075~7

## 장소 / VENUE

한국영상자료원 / Korean Film Archive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400 Worldcupbuk-ro, Mapo-gu, Seoul

© Copyright Films from the 1950s  
 design Grégoire Vaquez (gvaquez.com)